

ADB, 아태지역 기후금융 현황 분석을 통해 지원 확대  
필요성 강조

## 1. 발표 배경

- ADB는 '18-'19년\* 아태지역의 기후금융(Climate Finance)\*\* 현황을 분석한 평가 보고서 발간('23. 8월)

\* 현 시점에서 Climate Policy Initiative (CPI) 및 각국 정부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(코로나19 등 영향 배제)

\*\* 기후변화 완화 혹은 적응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(UNFCCC)

- 재원·부문·지역·금융수단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, 이를 바탕으로 기후금융의 제약요인과 권고사항 제언

- ADB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정부, DFI, 민간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후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

## 2. 보고서 주요 내용

- (규모) 공공 및 민간부문의 아태지역 기후금융 지원규모는 '18년 2,256억불, '19년 2,943억불 등 2년간 총 5,199억불 수준

-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교통\* 부문의 견인으로 약 30% 증가

\* 교통 부문이 유발하는 대기오염 해소, 차량 밀집도 완화, 철도·수로 전환 등

- (재원) 공공재원 3,518억불(68%), 민간재원 1,681억불(32%)로 조달

- (공공) 자국 및 양·다자 DFI 68%, 정부 예산 30%, 공공 및 다자기후기금\* 0.5% 등

\* 녹색기후기금(GCF), 기후변화기금(CCF), 지구환경기금(GEF) 등

- (민간) 기업 43%, 가계\* 28%, 상업금융기관 27% 등

\* 태양광 패널, 전기차 등의 구매를 위한 지출, 기후 관련 주식투자 등

- (부문) 기후변화 완화에는 4,725억불(91%)이 지원된 반면, 기후변화 적응에는 408억불(8%) 지원에 그침\*

\* 나머지 1%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모두 해당하는 이중혜택(dual-benefit) 건

- (완화)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교통 부문이 각각 54%, 40%로 큰 비중을 차지
- (적응) 수자원과 재난위험관리 부문이 각각 44%, 35%를 차지

- (지역)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로 각각 4,181억불(80%), 468억불(8%)이 지원되어 동아시아 집중도가 높음

- 동아시아 중 중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99%이며, 남아시아 중 인도에 대한 지원 비중이 82%로 편중 현상 심각

- (금융수단) 차입금(debt)으로 3,658억불(71%), 자본금(equity)으로 1,272억불(24%), 출연금(grant)으로 249억불(5%) 조달

- (차입금) PF사업 차입금 72%, 자체 차입금 21%, 저금리 정책자금 7%
- (자본금) 자체 자본금 80%, PF사업 자본금 20%

- (제언) 기후금융의 효과성, 중장기 금융지원 접근성, 개도국 정부 역량 측면에서 제약요인과 권고사항 제시

- (효과성) 부문·지역·금융수단별 격차가 상존하는바, 기후금융이 필요한 부문\*·지역\*\*에 지원을 확대하여 효과성 제고 필요

\* 농업, 임업, 토지복원 등

\*\* 중앙·서아시아, 태평양 지역 등

- (금융 접근성) 저소득 취약국은 중장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활성화 필요
- (정부 역량) 개도국 정부는 제도적·통계적 역량이 부족하므로 거버넌스 및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필요

### 3. ADB의 기후금융 추진 현황

- 아태지역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므로 ADB는 아태지역에 기후금융 적극 확대 중
  - 아태지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%를 차지하며,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도국들이 다수 소재
- ADB는 아태지역 개발과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달성 등을 위한 'Strategy 2030'을 수립·공표('18. 7월)
  - '30년까지 쏠 사업의 75% 이상 기후변화 대응 지원, '19-'30년 800억불의 기후금융 조달, 완화 부문 인프라 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
- 이후 '19-'30년 누적 기후금융 지원 목표액을 기존 800억불에서 1,000억불로 증액('21. 10월)
  -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각각 660억불, 340억불을 지원하고, 기후 관련 민간부문개발에도 120억불을 지원할 계획

#### < 참고 : EDCF의 기후금융 지원 현황 >

- ◇ EDCF는 기후금융 지원 확대·체계화를 위한 '그린 EDCF 추진 전략' 수립('21. 5월)
  - 중기 목표('25년, 6억불)를 최초 수립하고, 이를 위한 기후위험분석 및 성과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
- ◇ EDCF는 '21년 13억불, '22년 15억불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승인하여 당초 설정한 중기 목표를 2년 연속 조기 달성\*하는 등 기후금융 적극 확대 중
  - \* 금액(억불) : ('21년) 목표 6/실적 13 → ('22년) 목표 14/실적 15
- ◇ 사업 쏠 단계(사업발굴·준비, 실행, 평가)에 기후변화 대응요소를 반영하여 기후금융 지원 체계화
  - 'EDCF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'를 도입('21. 12월)한 후, 'EDCF 타당성 조사 작성지침'에 기후 요소를 강화('22. 3월)하는 등 대응체계 보강 지속
  - 더불어, OECD 통계기준인 리우마커와 자체 개발한 'EDCF 그린 Index'\*를 활용하여 차관 심사·승인 시 사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면밀히 점검
  - \* EDCF가 개별 사업의 그린 요소 규정 및 계량적 수준 측정을 위해 도입('21. 7월)

## 4. 시사점

- 아태지역의 기후금융 수요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 기후금융 갭\*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규모 확대 불가피

\* '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4.3조불의 기후금융 지원 필요(CPI, 2022)

- 특히, 저금리 정책자금은 중장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국가에 유용한 금융수단으로 유상원조에 대한 개도국 수요 증가 전망
- 주요 화석연료 생산·소비 지역인 중앙·서아시아와 기후변화에 크게 노출된 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후금융 지원 강화 필요
  - 양자 원조기관, DFI 등이 지역별 지원전략 수립 또는 신규 사업 발굴 시 참고 가능
- 아태지역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이 완화에 비해 부족한 편이므로 개도국 인프라 건설 지원 시 적응적 요소 강화 필요
  - 도로,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폭염, 폭우 등 극한 기상현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인프라 회복력 제고 가능
- ADB는 'Strategy 2030' 지원목표 달성을 위해 유상원조 기관 등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
  - 양허성 자금 동원을 위한 협조유자를 확대하고, 기업, 자선재단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

자 료 : ADB (2023), Climate Finance Landscape of Asia and the Pacific.  
ADB (2018), Strategy 2030.  
CPI (2022),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: A Decade of Data.  
UNFCCC 공식 홈페이지 등.

작 성 : 심사역 정 동 진, [djjung@koreaexim.go.kr](mailto:djjung@koreaexim.go.kr)